

일본문화

21801915 김경수

+

일본의 8대 무술

목차

1. 무술의 기원

2. 맨손 무술의 종류

1. 주짓수
2. 유도
3. 가라데
4. 합기도
5. 스모

3. 무기를 사용하는 무술

검도

궁도

3. 연월도

1. 무술의 기원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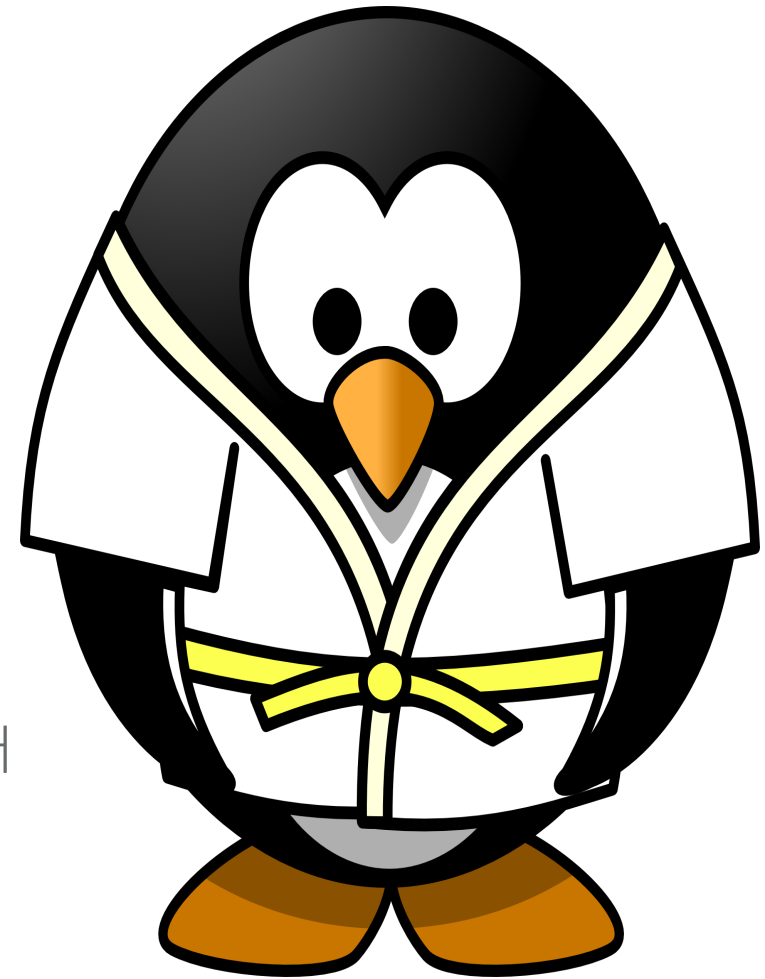
- 일본 무술의 기원은 일본 중세시대의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의 역할로 시작 됨
- 지배 계급의 엘리트 계층 사무라이는 검을 잘 휘두르기 위해 험난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함
- 무술 숙달이라는 무사도의 원칙을 훈련과 일상에 적용하여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었음
- 사무라이 계급은 메이지시대에 철폐되었지만, 도덕규범에 대한 존중은 남아 오늘날에도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배움



2. 맨손 무술의 종류

주짓수

- 주짓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투에 특화된 고대 무술
'주(柔)'는 부드러움을 뜻하고, '주쓰(術)'는 기술을 뜻함
- 주짓수는 한 사람의 힘을 온전히 쓰는 대신 상대방의 힘을
교묘히 다루는데 집중
- 주짓수는 아주 오래된 무술로 기원이 불분명하며, 기록이 아
닌 구두로 전승되어 오다가 에도 시대(1603~1868)에 들어서
공식화됨
- 이 독특한 형태의 무술은 특히 사무라이가 상대방과 너무 가
깝게 있어서 무기 대신 몸 씨름을 해야 할 때에 유용



2. 맨손 무술의 종류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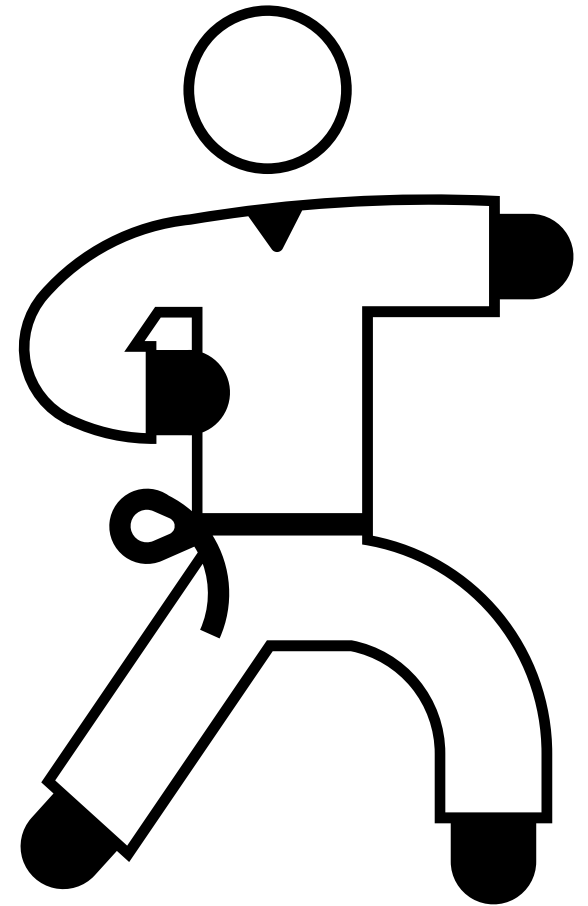
04

- 부드러운 무술'이라는 뜻의 유도는, 공격하는 무술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술
- 대련 때 입는 유도복은 가라테의 대련복과 비슷하지만, 가라테와 달리 유도는 메치기·굳히기 등의 기술과 몸을 보호하기 위한 낙법만을 사용
- 1964년 올림픽 경기에 처음 채택되었고, 올림픽 공식 종목이 된 이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됨
- 유도의 창시자는 일본 무술과 교육의 선구자인 가노 지고로 무술의 정신적인 측면에 집중하면 개인의 신체도 향상 시킬수 있다는 개념을 기반



2. 맨손 무술의 종류 가라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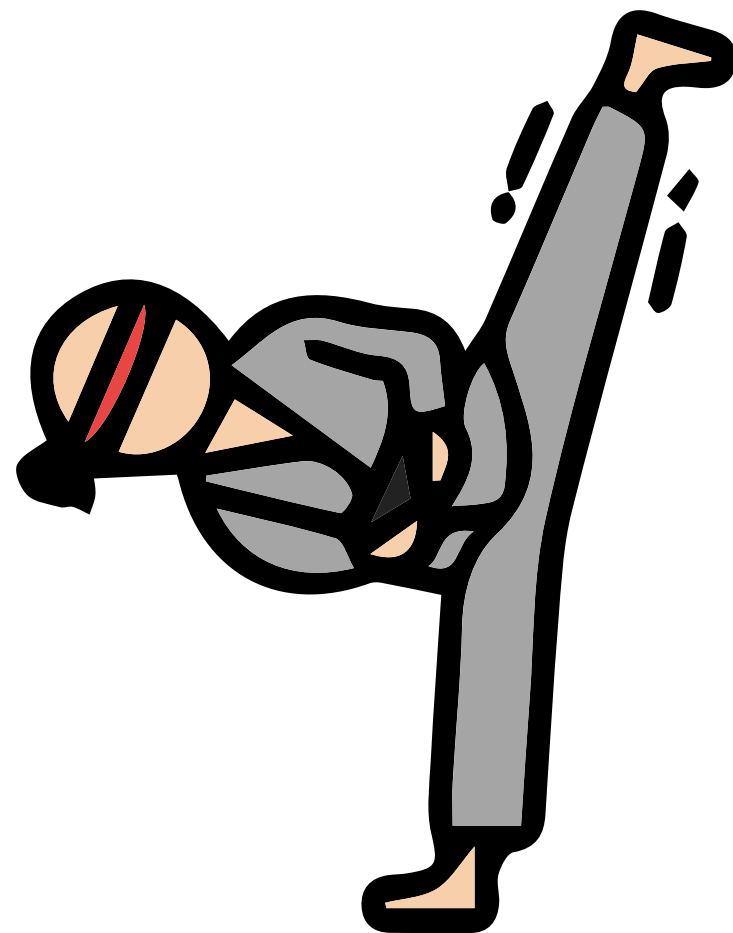
- 가라테는 일본 최남단의 현이자 과거 류큐 왕국이었던 오키나와에서 유래, 시간이 지나 일본 전역 및 전세계로 전파
- ‘빈 손(空手道)’을 뜻하는 ‘가라테’라는 이름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술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
- 일본에는 시토류, 와도류, 쇼토칸류 및 고토류라는 4개의 가라테 유파가 있고, 4대 유파의 가라테는 자세, 동작, 힘의 원천이 조금씩 다름
- 타격, 주먹, 발차기의 조합을 사용하는 가라테는 육체적인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심도 있는 무술



2. 맨손 무술의 종류 합기도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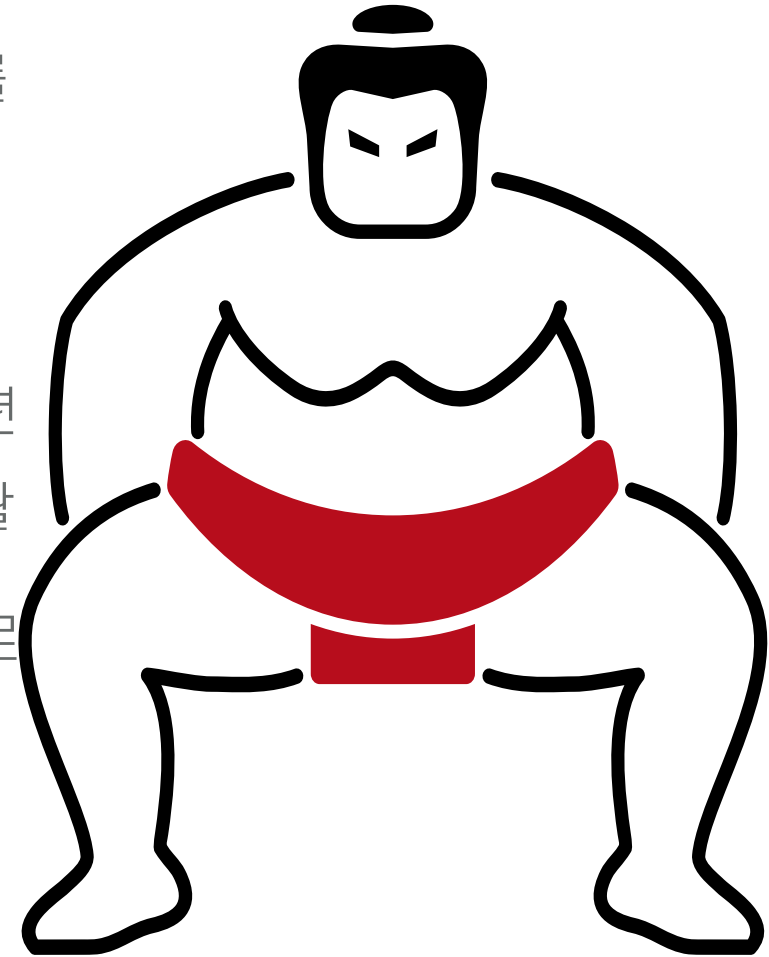
- 아이키도(合氣道, 합기도)는 '조화로운 정신의 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심오한 무술
- 많은 무술의 대가인 우에시바 모리헤이가 1920년대에 창시한 무술
- 우에시바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무술을 통합해서 새롭고 평화로우면서도 효과적인 무술을 만들고 싶어함
- 상대방을 격파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대신에, 유연함, 상호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서 재빨리 상대를 메치고 또 조르는 것을 중시



2. 맨손 무술의 종류

스모

- 스모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무술로 1,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일본 종교인 신도에서 유래된 것
- 고대 일본에서 신들에게 풍작을 기원하던 오락의 한 형태 이후 스모는 귀족들의 오락거리였으며, 중세에는 전투 훈련의 한 형태로 교육, 일본이 평화로워진 후 오락적 요소 부활
- 레슬링의 한 종류인 스모는 선수들이 상대방을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거나 쓰러뜨리기 위해 서로 밀치거나 때리는 무술
- 생선, 육류, 야채가 듬뿍 들어간 창코 나베라는 유명한 국물 요리는 스모 선수와 관련



3. 무기를 사용하는 무술 검도

- 겐도(剣道, 검도)의 뿌리는 전통적으로 사무라이들이 사용하던 칼에 있으며, 그 때문에 '검의 길'을 뜻하는 '검도'라는 이름을 사용
- '시나이'라고 불리는 죽도를 주로 사용하며, 검도가는 부상을 막기 위해 보호 장구와 투구를 착용
- 검도는 육체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스포츠 수련생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하며, 정신의 균형을 보이기 위해서 상대를 타격할 때마다 '기아이(기합)'을 넣음
- 검도는 띠가 없는 대신 단급 체계, '단'은 숙련될수록 승단이 어려움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 도장뿐만 아니라 학교 동아리가 있음



3. 무기를 사용하는 무술

궁도

09

- 규도(弓道, 궁도)는 일본의 궁술로 ‘활의 길’이라는 뜻 상당히 까다로운 무술로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숙달과 훈련이 필요
- 궁도의 역사는 야요이 시대(약 기원전 3세기~기원후 4세기) 까지 거슬러 올라감. 궁도는 사무라이 문화에서 중요시됨
- 총기가 도입됨에 따라 궁술이 전투에서는 덜 사용되었지만, 정신 수양과 훈련, 손재주와 집중력 향상 및 심신의 조화를 위해 사용
- 수련생들은 급 혹은 단 등급을 얻음. 궁도 시험은 많은 의식으로 구성된 정교한 행위로, 때때로 시험을 치르는 데만 8시간이 걸리기도 함,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시험



3. 무기를 사용하는 무술 연월도

10

- ‘적을 베어내는 칼’이라는 뜻의 ‘나기나타(なぎなた)’는 무기의 이름이자 동시에 이 무기를 사용하는 무술의 이름
- 시합 방식은 검도와 유사하지만, 나기나타를 휘두르는 방식은 무기만큼이나 독특해서 무기를 이용해 정강이를 타격가능
- 1500년대에 총기가 도입되면서 나기나타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됨. 대신에 장식용으로만 사용되거나 무가의 딸들이 호신용 무기로 사용
- 오늘날 여성이 나기나타를 사용하는 전통은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나기나타를 배우는 사람이 주로 여성인 이유



일본문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70642&categoryId=47315&categoryId=47315>

<https://www.tsunagujapan.com/ko/japans-most-famous-martial-arts/#hIKAHUEYNKU8Y6C>